

절망속에서 들려오는 빛소리

| 김흥호 |

믿음을 통해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누가복음 17:1~19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

믿 음

*

땀이 있어도 우물을 파도 비가 안 오면 쓸데가 없다. 비가 오고 볼 판이다. 비가 오자 메말랐던 산천초목이 춤을 춘다. 진짜 해갈은 땀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라 비다. 비 없이는 완전한 해갈은 있을 수 없다.

내 힘이 좌절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기다리던 비가 오듯이 바라던 것이 실현될 때 믿음이라고 한다. 비가 와서 우물에 샘이 터지고, 독에 물이 넘치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듯이,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던 곳에 물이 흐르고, 폭포가 달리고, 샘이 틀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바라던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비가 오고 샘이 터지듯, 은혜의 비가 오고,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지 믿음이 오게 할 수는 없다.

비가 오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을 가지고 독을 막고, 철학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 것이다. 비가 오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독도 없이, 우물도 없이 비만 기다림은 너무도 태만하다. 독을 쌓고, 우물을 파고, 비를 기다려야 한다. 독을 쌓고, 우물을 팠다고 비가 오는 것은 아니다. 독을 쌓고 우물을 파도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빗소리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독을 쌓고, 우물을 판 덕으로 우리는 우리의 벼를 최대한 지탱해 갈 수가 있다. 물론 그것이 절대는 아니다. 그래도 독이 마르고 우물이 말라 실농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비를 기다려야 한다. 비가 안 와도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비를 기다려야 한다. 과학, 철학이 절대는 아니지만 과학, 철학의 최대한의 발전이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세계요, 완전의 세계다.

비가 흔할 때는 과학과 철학 없이도 살 수가 있지만 가뭄 때는 과학과 철학이 상당한 힘을 낼 수가 있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 과학, 철학의 한계가 있다. 살리시는 이는 비요, 은혜요, 종교다. 가뭄이 짝을 때는 과학으로도 구원이 되고, 철학으로도 구원이 되지만 가뭄이 길면 종교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어려움은 율법으로나 행함으로도 극복이 되나 어려움이 심하면 종교를 가져야 한다. 믿음만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비다. 믿음이다. 믿음 뿐이다.

*

*

루 가복음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의 평야 설교로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헬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이 동네 저 동네 들러서 얘기하신 것을 적은 말씀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믿음이란 그렇게 달라고 하거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난 여러분께 존재(存在)와 소유(所有)란 말을 자주 씁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셀(Gabriel Marcel)의 『존재와 소유』란 책에는 “믿음이란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처음에는 없었던 것을 뭘 받아가지고 생기는 마치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깔려 있는 것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가리어지고 덮여져서 보지 못한다거나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간단히 율법과 복음이 합친 것이라고 했는데, 제일 유명한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은 꼭 실현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법(法)이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

의 마지막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법입니다. 법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지적(知的)인 직관(直觀)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상이라면 그 이상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행(行)의 실현, 실천입니다. 즉 믿음이란 지행일치(知行一致)입니다. 믿을 신(信)자를 보면 사람 인(人) 변에 말씀 언(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란 지(知)의 세계이고, 사람이란 행(行)의 세계입니다. 지와 행이 일치된 세계,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행일치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현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법(法)이란 보는 세계요, 복음은 듣는 세계입니다. 복(福)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가장 복스러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듣

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공자도 50에 보고, 60이 되어서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는 세계보다 듣는 세계가 한 단계 높습니다. 듣는 세계가 최후의 세계입니다. 공자도 마지막에 가서 듣는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세계가 최고의 세계입니다.

법의 깊이는 진리요, 복음의 높이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없으면 복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대로 사는 것, 아는 것 없이 그저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처음에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되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차라리 그렇게 가르치려면 아이 목에다 돌맹이를 매고 물속에 집어넣어 죽여 버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얘기입니까.

이처럼 가르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바로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고려 때 개성의 절간이 8만 9천개의 암자가 되어 개성이 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가르쳐 놓으면 가르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책임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란 말이 얼마나 책임을 강조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서 가르쳐야지, 모르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배우려고 교회 와서 애쓰는데,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특징이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외에 또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란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진리 없이 자유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과학을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즘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공부하는데 저녁 10시가 되어야 돌아갑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으면 대단치도 않은 것들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야단들입니다. 과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난 늘 말합니다. 과학이란 것은 3년만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철학이란 것은 6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란 것은 12년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가 철학보다 훨씬 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의 세계란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습니다. 처음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았어도 조금씩 접하고 차차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이 내게 뭘 말해주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 속은 인생이 살 수 있는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산다는 게 허무합니다. 나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올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어도 굉장히 너희들을 크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동양 옛날 어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진리가 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늦은 겨울인데, 선생님이 옆에 있는 화로를 가리키면서 “진리가 무언지 저기에 있으니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진리가 화로 속에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찾아봐야지” 하면서 선생님은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화로 속까지 뒤지다가 아주 작은 불씨를 하나 발견해내고, 그것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제자더러 내가 이제 너에게 진리를 보여줄 테니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눈을 감자 손바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제자는 손바닥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불씨를 손바닥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뜨렸겠지요. 진리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눈을 감고 봐야 됩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며, 진리는 내 몸 전체로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득이란 내 몸 전체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앙이 겨자씨만 해도 그것이 우주 전체를 놀라게 할 수 있고, 뒤덮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信仰)이란 근본적인 것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양식으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그런 시대는 ‘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합친 것이 신앙입니다. 즉 신(信)은 마음이요, 정신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을 동양사람은 언제나 물에 비교합니다. 물이란 원래 깨끗한 것입니다. 물이 오염이 되어서 더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독교식으로 말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것이지 본래는 깨끗한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란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실험해가는 것이며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삶을 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다시 깨끗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이 나옵
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보
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의 근본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근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근본 마음
을 갖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잘못해서 오염이 된 것
입니다. 이 더러워진 물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회개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자 하면 언제나 깨끗해질 수 있습
니다. 왜? 그것은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적인 것은 언제나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
해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본다
고 하는 세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신’이란 것을 동양사람은 언제나 ‘불’로 비교합니다. 우
리는 성령의 역사를 물과 불로 비교합니다. 이 우주만물이 본래는 무
엇인가. ‘불’입니다.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에서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 나무도 언젠가 불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불씨가 닿기만 해도 세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불씨가 있어서, 그 불씨가 모든 종이자루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구공탄도 태우고, 일체를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온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나무가 불이 될 때입니다. 불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이란 바로 나무가 불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정신입니다. 이 불이 안 붙으면 우리는 살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불이 붙어서 일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신의 성격입니다. 즉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정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의(義)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하나님을 보는 것과 정신이 깨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란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실험해가는 것이며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깊은 마음 속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속에서 고요하게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것이 복음이며, 그 둘을 합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을 우리가 이룩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세계의 높음을 느껴야 됩니다.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높은 세계인가를 느끼고, 이 높은 세계를 한번 살아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전집 4권 - 믿음의 힘'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